

『마당깊은 집』은 대구를, 대구는 『마당깊은 집』을 어떻게 기억하며 기억해야 하는가?*

양진오**

|| 차례 ||

1. 『마당깊은 집』의 새로운 독해
2. 1954년 대구, 가난과 ‘열기’ 사이에서
3. 길남이의 길, 성숙과 성장의 길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을 대상으로 본 텍스트가 전후 1954년의 대구를 어떻게 기억하며 동시에 오늘날의 독서대중들이 이 텍스트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그간 『마당깊은 집』은 여러 연구자와 독자들에게서 전후 대구의 결여를 이야기하는 텍스트로 독해되어 온 점을 감안해 필자는 본고에서 새로운 독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 새로운 독해는 『마당깊은 집』을 1954년 대구의 결여만이 아니라 경제적 열기를 포함한 당대 대구의 경제, 문화, 풍속 등 대구의 세부를 복원하는 로컬 텍스트로 간주할 때 가능하다. 그리고 그 새로운 독해는 『마당깊은 집』을 1954년 대구의 세부만이 아니라 전후 소년들의 성숙과 성장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탐색하는 인문적 텍스트로 간주할 때 가능하다. 여기서 필자는 신문팔이 소년 길남이가 신문팔이를 하던 중 우연히 들르게 된 동성로의 대본집에서 문학과 만나는 장면을 주목하면서 길남이의 신문팔이 동선을 내적 성숙과 성장의 길로 명명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요컨대 필자는 본고에서 『마당깊은 집』을 1954년 대구의 세부를 기억하는 로컬 텍스트이자 한 어린 영혼의 내적

* 이 논문은 2011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대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성숙과 동세대들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인문적 텍스트로 독해하며 이 텍스트의 새로운 독해를 시도하고 있다.

주제어 : 기억, 로컬 텍스트, 인문적 텍스트, 대구, 내적 성숙, 문학, 책

1. 『마당깊은 집』의 새로운 독해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은 소년 길남과 성인 길남의 시점을 이중적으로 교차하는 방식으로 전후 1954년의 대구 장관동과 그 일대에서 전개된 길남과 그 가족의 결여를 이야기한 소설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88년 출간 이래 독자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아온 스테디셀러인 『마당깊은 집』은 1990년 1월 8일부터 30일까지 문화방송 드라마로 제작, 방영되어 시청자들의 인기를 끌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구 중구에 산재한 『마당깊은 집』의 집터, 신문팔이 소년 길남의 동상, 약령시장, 종로, 군방각 등 작품 현장을 방문하는 ‘마당깊은 집’ 투어가 대중들의 관심 속에서 지속되고 있으니 오늘날 『마당깊은 집』은 소설로서만이 아니라 문화콘텐츠로도 상당한 각광을 받고 있다.¹⁾

그런데 이처럼 『마당깊은 집』이 허구와 실제의 경계를 넘나드는 텍스트로 각광받는 상황에서 이 텍스트의 새로운 독해 가능성은 제고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텍스트의 독자라면 누구나 『마당깊은 집』의 주서술자인 길

1) 2010년 10월 30일 대구시 중구청 주관으로 약령시 한의약 전시관과 종로, 진골목, 장관동 일원에서 ‘마당깊은 집’ 축제가 개최되었다. ‘길남이·길중이와 함께 떠나는 마당 깊은 집 투어’,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카페’ ‘마당깊은 집 왈츠’ 등이 축제 기간 중 열렸다. 이에 대해서는 뉴시스, 2010년 10월 27일자 최일영 기자의 기사(‘대구 중구서 ‘마당깊은 집’ 축제 열려’) 참고.

남이가 가장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수난을 인상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마당깊은 집』의 출간 이래 연구자들이 이 소설을 가난과 궁핍 등 결여의 개념으로 독해²⁾해 온 것도 그렇지만 작가조차 이 소설을 놓고 진행된 좌담회에서 이 소설을 “휴전 이후 가난했던 삶을 그린 것”,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시간에 대한 그림”으로 정의한 것에서 알 수 있듯, 『마당깊은 집』은 오랜 시간 전후 대구의 간난신고를 이야기한 소설로 명성을 얻어 온 게 사실이다.³⁾

그러나 앞서 말했지만 『마당깊은 집』을 전적으로 전후의 결여 개념에 기대어 독해하는 것은 이 텍스트의 새로운 독해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 특히나 『마당깊은 집』이 전후의 대구를 재현하는 문화 콘텐츠의 사례로 각광받는 상황에서 『마당깊은 집』의 독해는 당대의 결여를 또다시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외의 현상과 사건들에 대해서까지도 의미를 조명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타당하다. 『마당깊은 집』이 1954년의 대구를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2) 김한식, 「소년들의 도시, 전쟁과 빈곤의 정치학」, 『비평문학』37집, 2010, p.155. “두 소설에는 굶주림과 관계된 경험이 많이 등장한다. 정신적 억압이나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가난 때문에 소년은 고통스러워한다. 이런 현실적인 절박함에서 빈곤의 정치학은 시작된다. 하루 세끼 밥을 먹는 소망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시절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될 지는 너무도 분명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상우·전선영, 「성장소설 연구: 김원일 소설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제19권 1호, 2011, p.90. “『어둠의 혼』의 길남과 『마당깊은 집』의 길남은 늘 배고픔의 고통에 시달린다. 누구나 어렵던 시절,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에 제때 끼니를 잇기가 힘든 주인공들은 주린 배를 움켜잡으며 배고픔을 해결할 기회를 노린다.”

윤정현, 「가족소설의 관점에서 본 소년서사의 두 유형」, 『동북아문화연구』제36집, 2013, p.144. “월북한 아버지를 대신해 가계를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의 기대와 닦달을 한 몸에 받으며 어린 나이에 소년가장의 책임을 주입받아야 했던 길남에게 1954년의 대구는 온갖 생존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극한의 공간이다.”

3) 박진숙 외, 『마당밭』, 청동거울, 2002, pp.194-195.

오늘날의 독서대중들이 『마당깊은 집』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논의하는 데에서 이 텍스트의 새로운 독해 가능성은 모색될 수 있는 것이다.

필자가 이와 같은 연구 주제에 착목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몇 년 사이 대구 중구에 소재한 대구의 근대 유적인 동산 청라언덕, 3·1만세운동길, 계산성당, 뽕나무 골목, 이상화·서상돈 고택, 구제일교회, 화교협회, 종로, 진골목 등이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99곳”⁴⁾으로 선정될 정도로 대중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필자도 중구에 소재한 대구의 근대 유적들을 답사하며 대구 근대의 풍경을 확인하거나 그 내면을 상상할 수 있었고, 나아가 지역의 근대 혹은 근대의 지역성을 앞으로 공부해야 할 연구 주제로 생각할 수 있었다.

제도와 풍속, 사건으로서의 근대가 식민지 경성 중심으로 유입되고 구조화된 것은 객관적 사실에 해당하겠으나 경성만이 아닌 대구, 부산, 인천, 군산 등 지역의 근대에 대해서도 동시적으로 사유하고 상상하는 게 앞으로 이 방면의 연구를 깊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게 필자의 소견이다. 근대가 전세계적 차원의 보편 현상이거나 사건일 수 있겠지만 해당 지역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사회경제적 토대에 상응해 그 지역의 고유한 근대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자면 지역의 근대 연구도 자못 의미가 상당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로컬로서의 대구의 근대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 가치를 제고하는 이 방면의 연구는 나름 의미 있어 보인다.⁵⁾

4) 한국관광공사는 2012년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99곳을 선정했다.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근대 골목이 선정되었다. 99곳의 목록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확인. (<http://www.korea.kr/policy>)

5) 필자는 로컬을 물리적 차원의 지방이나 지역의 개념으로 한정해 이해하지 않고 있다. 필자는 로컬을 하나의 사회가 구성 혹은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체들 간의 권력 및 역할 관계가 작동하면서도 특정한 감각과 취향이 공유되며 자기 생명력을

『마당깊은 집』은 대구를, 대구는 『마당깊은 집』을 535
어떻게 기억하며 기억해야 하는가?

『마당깊은 집』의 새로운 독해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시도되는 게 바람직하다. 즉 필자는 『마당깊은 집』을 단지 전후 대구의 결여를 이야기하는 텍스트로 독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1954년 대구의 경제, 문화, 풍속 등 대구의 세부를 읽는 로컬 텍스트로 독해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필자는 『마당깊은 집』을 단지 하드웨어적 측면의 문화콘텐츠로 탐문하는데 그치지 않고 길남이의 내적 성숙과 동세대들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인문적 텍스트로 독해되기를 바라고 있다. 요컨대 필자는 본고에서 『마당깊은 집』을 1954년의 대구를 기억하는 로컬 텍스트이자 오늘날의 독서대중들이 『마당깊은 집』에서 궁극적으로 기억해야 할 본원적 가치를 탐색하는 인문적 텍스트로 독해할 계획이다.⁶⁾

2. 1954년 대구, 가난과 ‘열기’ 사이에서

2장에서 필자는 『마당깊은 집』을 1954년 대구의 경제, 문화, 풍속 등 대구의 세부를 기억하고 재현하는 로컬 텍스트로 간주하면서 이 텍스트가 1954년의 대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재현하는지 그 방식과 의미를 논의할

유지하는 장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6) 박승희의 논문 『로컬리티와 1954년 대구』는 『마당깊은 집』을 “전후 미국 문화를 통한 세계 인식, 가난과 반공으로 재구성되는 로컬의 삶, 그 과정에 드러나는 로컬에 대한 국가의 억압기제”를 이야기하는 텍스트로 독해하고 있다. 1954년 대구를 “전후의 도시풍경과 냉전 이데올로기, 미군문화와 피난의 흔적이 집중된 지역”으로 간주하는 박승희의 논문은 『마당깊은 집』을 로컬 개념으로 독해한 성과로 읽힌다. 박승희 『로컬리티와 1954년 대구』, 『인문연구』64호, 2012, pp.49-50. 이외 박승희는 논문 『지역역사 공간의 스토리텔링 방향과 실제』에서 『마당깊은 집』을 공간 스토리텔링의 개념으로의 독해 가능성을 말한 바 있다. 박승희, 『지역역사 공간의 스토리텔링 방향과 실제』, 『한민족어문학』제63집, 2013.

예정이다. 특히 필자는 이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이 텍스트가 1954년의 대구를 전쟁의 후유증을 앓는 재난 도시로 한정해 기억하고 재현하는 게 아니라 전후 복구과 연동되는 경제적 열기에 대해서도 동시적으로 기억,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결여와 열기에 관계된 인물들이 로컬로서의 대구의 재구성에 있어 불균등하게 개입하거나 배제되는 양상에 대해서도 밝힐 예정이다. 먼저 전쟁의 후유증을 앓는 대구를 표상하는 장면을 독해하기로 하고 이어 경제적 열기가 비약하는 대구를 표상하는 장면을 독해하기로 하겠다.

1) 역전으로 가면 많은 거지아이와 실업자를 볼 수 있었다. 걸보기에 멀쑥한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며 애처롭게 구걸하는 깡통 든 아이들의 남루한 차림이나, 때에 전 군복을 입고 역 광장을 무료로 거닐며 땅에 버려진 담배꽂이를 주워 피우는 초췌한 실업자를 보면, 사람 사는 일이 저렇게 힘들구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역 광장으로 흘러져 나오는 승객을 쫓아 우르르 몰려드는 지게꾼이나 띄약벌 아래 목판을 벌여놓고 파리 떼 쫓으며 과일과 떡을 파는 장사꾼을 볼 적도 마찬가지였다.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내게는 적잖게 위안이 되었다.(39-40)

2) 휴전이 되고 해가 바뀌었다지만 그 무렵까지 대구시에는 2군사령부, 군통합병원, 미 8군사령부 외에도 육군본부가 미처 환도하지 못한 채 있었고 군부대에 기댄 각종 기업체와 군수 공장과 하청 공장이 많아 전쟁 열기가 좋았다. 시내 중심 거리인 중앙동 향촌동 송죽극장 일대에는 넥타이 맨 양복쟁이와 양장차림에 뒷굽 높은 뽕족구두를 신은 젊은 여자들로 넘쳤고, 군복차림의 한국군과 미군도 민간인만큼이나 흔하게 볼 수 있었다.(11)

『마당깊은 집』의 주서술자인 길남이는 고향 진영의 “장터거리의 주막에서 불목하니 노릇을 하다가 삼 년 동안의 전쟁이 멈춘 휴전 이듬해인 1954년

4월 하순” 선례누나를 따라 대구로 입성한다. 본래 길남이는 한국전쟁 이전 부모와 함께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전쟁이 발발하여 좌익 인사인 부친이 월북하게 되자 부친을 제외한 가족들과 함께 그 해 11월초 피난민 수송용 남행 열차를 타고 진영에 도착한다. 그런데 부친의 뒤를 쫓는 경찰의 시달림을 참다못한 모친은 길남이를 진영에 두고 세 자식과 함께 외가가 있는 대구로 떠나게 된다. 이렇게 진영에 혼자 남게 된 길남이가 선례 누나를 따라 대구로 입성하는 장면으로 이 소설은 시작하고 있다.

선례누나를 따라 대구로 입성한 길남이는 중학교에 입학해야 할 나이였지만 집안 사정상 그럴 처지가 아니었다. 처음에는 “막내 아우 손을 잡고 큰길로 나가 낫선 도회지의 가까운 지리를 익히며 하릴없이 빈둥거리던 길남이는 또래의 비슷한 환경의 아이들처럼 신문팔이 행상을 나서게 된다. 인용문 1)은 현재의 대구 구도심을 왕래하며 신문을 팔던 길남이의 시선에 포착된 대구 역전의 풍경이다. 이 대구 역전은 길남이가 “교복 차림으로 책가방 든” 또래 학생들이 부러울 때 소일 삼아 찾는 장소로서 “거지아이와 실업자”의 은거지이다. 거지아이와 실업자가 즐비한 1954년의 대구 역전은 대구를 전쟁의 후유증을 앓는 재난 도시로 재현하는데 충분한 장소이다. 독자들은 길남이의 시선에 포착된 1954년의 대구 역전에서 전후 대구의 결여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텍스트가 전후 대구의 결여만을 기억하고 재현하는 것은 아니다. 1954년의 대구는 “군부대에 기댄 각종 기업체와 군수 공장, 하청 공장 등의 열기가” 가득한 전후 도시이기도 한 까닭이다. 이 열기는 양키시장과 동성로 주변에서도 쉽게 포착된다. “그 화려한 거리에는 양품점 귀금속점 시계점 양복점 라디오점방들이 자리 잡았고, 한껏 멋을 내어 차려입은 통행인들로 늘 붐볐다.” 인용문 2)에서 확인되듯, 1954년의 대구는 전후의 결여만이 아니라 “양복쟁이, 양장차림의 젊은 여자, 군복차림의 한국군과

미군”들이 확보하는 열기의 도시로도 기억되고 재현된다.

인용문 1)의 남루한 차림의 거지아이와 초췌한 실업자들이 자연스레 전후의 결여를 표상한다면 인용문 2)의 중앙통 일대의 양품점 귀금속점 시계점 양복점 라디오점방들은 경제적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대구의 경제적 열기를 표상한다. 중앙통 일대는 이미 식민지 시대부터 대구경제의 본산처럼 대중들의 각광을 받긴 했지만 전쟁 후인 1954년 대구의 경제 열기를 극적으로 표상하는 장소로 여전히 당대 대중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이 텍스트는 1954년의 대구를 전후의 결여와 그 결여를 상쇄하는 경제적 열기가 공존하는 도시로 기억, 재현하고 있다.⁷⁾

결여와 열기가 공존하는 1954년 대구의 혼재적 성격은 『마당깊은 집』의 건축학적 구조와 상동 관계를 보이기도 한다. 주인 내외와 그 가족이 거주하는 안채를 작가는 이렇게 묘사한다. “대청에 유리 끼운 문짝을 달고 서양식 응접의자를 놓아 한옥도 양옥도 아닌 어정쩡한 모양새”를 한 안채에서는 “가끔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 유행가를 진즉으로” 틀곤 하는데, 이 안채의 주인은 “육중한 솟을대문”을 통해 “당당하게 외출”했다.

육중한 솟을대문의 위용을 자랑하는 이 ‘마당깊은 집’, 특히 이 집의 안채는 조선과 “왜정 시대”의 흔적만이 아니라 당시 유행하던 미국식 스타일까지 첨가되어 있으니 이는 전통과 식민, 전쟁 이후의 건축 스타일이 뒤섞인 문화 혼종의 표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안채에

7) 필자가 공존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소설의 서술자가 길남이라는 소년으로 설정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으나 이 소설은 결여와 열기를 표상하는 세력들 간의 갈등과 대립을 첨예하게 드러내지는 않는다. 그리고 소년 길남이가 아닌 성인 길남이 역시 1954년의 대구를 회고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쪽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는다. 더욱 주목되는 대목은 소년 길남이 극단적으로 가난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고통을 사회를 향한 분노로 표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며 이는 성인 길남 역시 마찬가지이다.

농인 서양식 응접의자와 일요일 오후에 들리던 영어 유행가이다. 이 대목은 ‘마당깊은 집’ 주인 내외의 경제적 호황이 미국의 지원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바,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로컬로서의 1954년 대구의 재구성에 결정적으로 개입하는 외부의 절대적 변수로 당대의 대구 주류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반면 크기가 같은 방에서 피난민 출신의 네 가구가 거주하는 아래채는 “사과 껍질을 찬장 삼아 포개어놓고 동두깨비 같은 살림을 사는 처지”였고 “쪽마루 앞 한 칸에 판자로 한 평 정도의 가건물을 내 키만한 높이로 짓고 루핑을 덮어 부엌으로 사용”할 정도로 궁핍한 처지였다. 그리고 길남 가족이 사는 방은 “아래채 가장 끝방으로, 변소에서 시작되는 수채 겸한 개골창이 집 가장자리로 흘러 늘 퀴퀴한 냄새가 스며”들기도 했으니 ‘마당깊은 집’의 위치와 아래채의 구조는 그 자체로 1954년의 대구의 결여와 열기를 상동적으로 반영한다. 그런데 ‘마당깊은 집’의 셋방 정도면 사람 살 만한 터라고 이 텍스트는 말한다. “대구 변두리 야산을 뭉개고 피난민이 마구잡이로 판잣집이나 거적집을 지어 하수구나 변소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날림집이 허다했다고 이 텍스트는 증언하고 있으니 ‘마당깊은 집’의 저 밖의 세계는 도처마다 결여의 흔적이 생생했다.

『마당깊은 집』은 이처럼 1954년의 대구를 결여와 열기가 공존하는 로컬로 재현하면서 동시에 이 결여와 열기의 기원에 대해서도 흥미롭게 고찰하고 있다. 먼저 순서를 바꿔 ‘마당깊은 집’의 주인 내외, 특히 바깥 주인의 가계 내력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주인아저씨는 “동척에 다니며 왜정 시대 한 시절 영화를 누렸던 분의 장손”으로서 경북 의성군에 소재한 토호 집안의 자제이다. 주인아저씨의 “중조부되는 이는 조선말 대구부 도사를 지낸 문벌”로서 주인아저씨는 상당한 부를 대물림 받은 토착 부르주아로 보인다. 이 “주인아저씨는 출근 때나 그 얼굴을 잠깐 볼 수 있을 만큼 늘 바쁜

사람”이었으며 “외박이 잦았고 허구헌날 밤이 깊어서야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는 인물로 소개된다.

그런데 “대구 변두리 침산동에 면방적기 열 몇대를 차려놓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이기도 한 주인아저씨가 예전부터 “늘 바쁜 사람”은 아니었다. “어무이, 공장이 파리 날릴 짝이 엇그제 아님니까. 사업 운이나 섬유 경기가 늘 있는 게 아니랍니다.”라는 주인아저씨의 말에서 확인되듯, 주인아저씨가 경영하는 오성 직물은 “전쟁 동안 원사 구입이 힘든 데다 시장 경제가 막혔다 보니 수요 또한 격감해서 개점휴업 상태로” 쉬고 있다가 “휴전을 앞두고부터” “밤낮으로 쉴 틈 없게 가동”하는 상황이었다.

이 주인아저씨의 부는 두 가지 차원에서 형성되고 있다. 하나는 가게 선대로부터 대물림 받은 재산이며 다른 또 하나는 그를 바탕으로 한 섬유 공장 운영으로 얻게 된 이익이다.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후자이다. 대구가 예로부터 섬유 도시로 알려진 바도 있지만, 주인아저씨는 이를 입증하듯 당시로서는 대구의 외곽이라 할 침산동에 섬유 공장을 운영하며 상당한 부를 축적해 간다.⁸⁾ 이 주인아저씨와 협력하는 주변 인물들도 예사롭지 않다. 이들은 주인아저씨의 친척이기도 한 사장, 군인, 경찰 그리고 미군과 공무원 등등이다. 이들은 전후 대구의 경제를 이끈 주인아저씨 부류들에게 협조한 인물들로서 로컬로서의 1954년의 대구를 재구성하면서도 동시에 지배하는 주역들이기도 했다.

여기서 이들이 연출하는 자기 과시적 소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자기 과시적 소비가 연출되는 사건이 위채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이다.

8) 대구는 이미 식민지 시대부터 섬유 산업의 기반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섬유개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해방이후 한국섬유공업의 24.2%인 1백49개 업체가 경북에 입지해 있고 그 중 95개 업체가 대구에 집중돼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참고. (<http://textile.or.kr/main.do>)

이 크리스마스 파티는 주인아저씨가 자신의 아들인 성준을 미국으로 유학 보낼 목적으로 연 것으로 이 파티에는 “2군사령부에 사무용품 일체를 납품 하는 업체 사장인 주인아저씨 사촌 내외, 영남비료 사장이라는 친척 내외, 역시 친척 된다는 군복 정장 차림의 육군 대령, 대구 경찰서 대공 담당 친척 경감 내외, 그리고 양로배기로 머리카락이 갈색인 젊은 미군 대위, 그리고 도청 무슨 국장이라는 관리 내외” 등이 초대된다. 이 파티에 초대된 이들은 군방각에서 파견된 요리사가 만든 음식을 뷔페식으로 연이어 소비하며 춤판을 벌인다.

이 주인아저씨가 연 크리스마스 파티는 당시 대구 주역들에게 팽배한 윤리 감각의 부재와 세속적인 졸부주의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해석⁹⁾될 수도 있지만 더 흥미로운 대목은 파티로 상징되는 미국식 대중문화를 연출하고 소비하는 이들의 자기 과시이다. 이들은 전후 대구 경제가 미국의 지원 등으로 활기를 되찾는 과정에서 축적된 부를 토대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연출하고 그 연출을 즐기고 있다. 이 대구의 주역들에게서 우리는 이들이 로컬로서의 대구를 재구성하고 지배하면서도 그와는 별도로 미국적 가치와 풍속을 지향하는 탈로컬의 욕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래채에 거주하는 피난민들의 상황은 어떤가? 아래채의 수동가로 시작해 첫째 방은 경기도 연백군에서 피난 나온 경기댁 가족이, 둘째 방은 퇴역 장교 출신 상이군인 가족이, 셋째 방은 평양댁 가족이 넷째 방은 길남이 가족이 입주하고 있다. 전쟁은 불가피하게 유동 난민을 대량 양산

9) 주인아저씨가 부를 형성하는 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인아저씨의 부의 형성은 “전쟁 뒤끝이면 입은 장사와 먹는장사가 호황을 누린다는 이치”를 증명이라도 하듯 예로부터 섬유 도시로 불린 대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사회적 현상에 해당하기에 좀 더 세심한 분석이 요청되는 까닭이다. 또한 주인아저씨와 함께 송죽극장 입구에 점포를 연 주인아주머니의 경제 활동은 1954년 대구 경제의 사회적 성격을 확인케 하는 상징적 설정으로서 그 의미가 예사롭지 않다.

하는 사건인 까닭에 아래채에는 경기도, 평양, 서울 등에서 유입된 피난민들이 모여 살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이 아래채에 거주하는 피난민 세입자들은 위채의 주인 내외처럼 파티를 연출하고 즐길 처지가 아니다. 한 예로 퇴역 장교 출신 상이군인 가족인 준호 아버지만 해도 그렇다. 길남이 시선에 포착된 준호 아버지는 “계급장 없는 장교 작업모에 군복 차림”으로 집을 나서서는 “왼손에는 작은 군용백을 들고” 다방을 돌아다니며 연필 공책 빗 칫솔 따위의 일용품을 파는 행상 노릇을 한다. 그리고 준호 아버지의 아내는 칠성시장 입구에 목판 행상을 벌려 하루별이 장사를 하고 있었으니 이들 부부의 처지는 안채 주인 내외와는 극단적으로 대극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들의 자기 검열이다. 피난민 출신의 아래채 가족들은 자신의 과거가 공개되기를 극도로 꺼린다. 위채 주인 내외가 자기 연출적이며 자기 과시적이라면 이 아래채 가족들은 그렇지 않다. 아래채 가족들이라고 해서 그 과거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는 초보적 수준의 공개이다. 이들의 과거, 예컨대 이들이 ‘마당깊은 집’으로 오기 전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이 피난민 아래채 가족들은 서로 모르며 굳이 이에 대해 공개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한 예로 평양댁 아들인 정태의 월북 미수와 이와 관련된 방첩대의 출동, 이 현장을 목격한 경기댁의 자기 검열적 발언¹⁰⁾은 아래채 가족들이 처해 있는 일상적인 위기를 반영한다. 이와 같은 자기 검열은 길남이 가족에게도 해당된다. 고향 진영에서 금융조합서기였던 길남이의 부친은 주인아저

10) 평양댁 아들 정태를 체포하러 온 방첩대 요원을 본 경기댁은 “이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입조심이 제일이다. 한마디 말두 천금으로 알아 씹구 씹어 뱉어야지, 우리같이 이복서 내려온 치들은 사상 관계에 한해서는 더욱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손에 어떤 험한 변을 당할지도 몰라”라고 말하며 아들의 입단속을 당부한다.

씨와 대극적인 삶을 살다가 북으로 간 월북인사다. 반공이데올로기가 강력히 작동하는 남한에서 길남이의 가족사는 결코 공개되지 말아야 할 금기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길남이 가족을 포함한 아래채 가족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마당 저 깊은 곳에 숨긴 비밀의 가족들이기도 하다. 위채의 주인 내외가 자기 과시의 부부라면 이들은 자기 검열의 가족들이다.

이런 점에서 이 피난민들의 진짜 결여는 물질적 결여가 아니라 로컬로서의 대구의 재구성에서 배제된 하위주체로서의 결여이다. 이들은 로컬로서의 대구의 재구성 과정에서 위채의 주인 내외와 협력 인물들에게 대응할 민중적 네트워크를 본원적으로 구축할 수 없는 자기 검열의 하위주체들인 것이다.

이처럼 『마당깊은 집』은 1954년의 대구를 전후의 결여와 열기가 공존하는 도시로 기억, 재현하면서 동시에 이 결여와 열기에 연계된 인물들이 어떻게 대구를 재구성하거나 배제되는지를 이야기하는 로컬 텍스트로 독해될 수 있다. 또한 『마당깊은 집』은 이외에 아래채를 수몰시킬 정도의 장마, 일주일째 연이어 벌어지는 살인사건, 평양댁 아들 정태의 월북 미수 사건, 반공 시국 대회, 하루아침에 줄행랑을 친 고아원 원장의 도망 사건, 대중들이 왕래하는 중앙통 일대, 실업자와 거지가 즐비한 대구 역전, 피난민들끼리 서로 헤어진 가족을 찾는 방천, 양키시장, 서문시장, 칠성시장 등의 장면과 풍경을 일종의 삽화처럼 배치하면서 이 텍스트의 로컬적 성격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요컨대 『마당깊은 집』은 1954년의 대구의 결여와 열기 그리고 그 관계된 인물들의 역학 구도, 대구 고유의 일상과 풍경 등을 기억, 재현하면서 1954년 대구의 세부를 복원하는 것이다.

3. 길남이의 길, 성숙과 성장의 길

3장에서 필자는 오늘날 『마당깊은 집』이 집터, 관련 인물의 동상과 건물 등 하드웨어적 차원의 문화콘텐츠로 탐문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탐문의 한계를 상쇄할 수 있는 기억의 방식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1954년 대구 도심을 배경으로 한 길남이의 신문팔이 동선과 그 의미를 탐색할 것이다. 길남이의 신문팔이 동선이 단지 생존을 위한 동선이 아니라 길남이의 정신적으로 눈을 뜨게 한 성숙의 길이자 전후 동세대들의 삶의 궤적을 함축한 성장의 길로 이해될 수 있는 까닭이다.

즉 필자는 길남이의 신문팔이 동선을 길남이를 성숙으로 길이자 동세대들의 성장을 견인한 길로 간주하며 오늘날의 독서대중들이 『마당깊은 집』에서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인문적 가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요컨대 『마당깊은 집』의 집터, 작중인물의 동상, 관련 건물 현장과 흔적을 탐문하는 게 『마당깊은 집』을 기억하는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선례 누나를 따라 대구로 입성한 길남이는 이미 중학교 입학 시기를 놓친 상황이었다. 길남이의 모친 역시 집안 사정상 길남이를 중학교에 입학시킬 목적으로 대구로 불러 온 것이 아니었다. 길남이의 신문팔이는 모친의 다음과 같은 준엄한 요구에 따라 시작된다.

길남아 내 말 잘 듣거라 나는 인자 애비 읊는 이 집안의 장자다. 가난하다는 기 무신 쥘지, 그 하나 이유로 이 세상이 그런 사람한테 얼마나 야박하게 대하는지 니도 알제? 난리 겪으며 배를 철철 굶을 때, 니가 아무리 어렸기로서니 두 눈으로 가난 설움이 어떤 긴 줄 똑똑히 봤을끼다. 오직 성한 몸뚱이뿐인 사람이 이 세상 파도를 이기고 살라 카모 남보다 갑절은 노력해야 겨우 입에 풀칠한다.(31)

1954년 ‘마당깊은 집’의 “안마당 정원에 철쭉꽃이 활짝 핀 5월 초순 어느 날” 모친은 길남이를 불러 “재봉틀 앞에 앉히더니, 재봉틀 서랍에서” 돈 팔십 환을 꺼내어 길남에게 ‘애비 없는 집안의 장자’로서 남보다 갑절 노력하여 가난 설움을 씻으라고 당부한다. 길남은 모친의 당부를 계기로 막막한 심정으로 신문팔이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이 대목에 등장하는 모친의 ‘애비 없는 장자’라는 표현은 『마당깊은 집』을 꿰뚫는 해석의 키워드로서, 실제 길남의 의식을 강박하는 생존의 화두이기도 했다.

그런데 필자는 ‘애비 없는 집안의 장자’로서 길남이의 가난과의 고투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결여와 열기가 공존하는 혼재적 현실에서 좌초하지 않은 길남이의 변모를 더욱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 변모는 전후의 결여와 열기가 혼재적으로 뒤섞인 현실에서 길남이는 신문팔이를 하던 중 문학과 만나게 되면서 시작되는 바, 길남이와 문학과의 만남은 이 텍스트의 빛나는 대목 중 하나이다.

그러면 이에 대해 더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길남이가 신문팔이 소년으로서 대구 도심을 오가며 판 신문은 대구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 등 세 종류였다. 이 신문은 지금도 대구에서 출간되는 유력 매체로서 당시 전후 대구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을 보도하거나 소설을 연재하며 대구 독서대중들의 성원을 받았다. 그런데 길남이만 신문팔이에 나선 것은 아니었다. 길남이 또래의 미취학 소년들이 이 신문을 들고 대구 도심을 내달렸다. 요컨대 이 텍스트에 등장하는 길남이를 포함한 신문팔이 소년들은 거리에서, 길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전후 소년들이었다. 그런데 진영 촌놈인 길남이가 처음부터 신문 행상을 쉽게 한 것은 아니었다. 다행스럽게도 길남이도 서서히 신문팔이 대열에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되었으니 길남이의 신문팔이 동선이 흥미롭다.

신문팔이를 시작한 지 보름을 넘기자 비로소 내 목청이 트였다. 나는 “영남 일보 영남일보 방금 나온 영남일보 기사 특보 실렸습디!” 하고 외치며 바람갈게 내달을 줄도 알게 되었으니, 신문 열다섯 부를 어렵지 않게 팔 수 있었다. 물론 내 신문팔이에도 일정한 행로가 정해져 중앙통 일대, 송죽극장 주위의 다방, 양키시장, 대구역, 군 통합병원을 차례대로 거쳤다.(37)

중앙통 일대-송죽극장 주위 다방-양키시장-대구역 등으로 이어지는 길남이의 신문팔이 동선은 현재 대구의 구도심에 해당한다. 이 신문팔이 동선을 오가는 동안 길남이는 1954년의 대구 도심을 관찰하고 중계하는 서술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물론, 1954년 대구 도심을 중계하는 서술자가 ‘시골’ 진영에서 온, 게다가 나이 어린 소년이라는 한계 상 그 중계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런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길남이의 시선에 포착된 1954년 대구 도심의 풍경은 흥미롭다. 길남이의 시선에 포착된 1954년의 대구 도심은 양품점, 귀금속점, 시계점, 양복점, 라디오점 등 대구 경제의 부흥을 알리는 표상들이 거리를 화려하게 수놓았고 그 거리에는 연인들이 어른들의 눈을 피해 연애를 즐기곤 했다.

길남이는 모더니즘 계열 소설에서 흔히 도시의 거리를 배회하며 도시의 근대를 중계하는 산책자와 그 성격과 역할이 전혀 다르지만 제한된 여건에서나마 전후 대구 도심의 경제 부흥과 그와 관련된 장면을 재현하는 중계자 역할을 하고 있다. 길남이를 ‘애비 없는 집안의 장자’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가난과의 고투를 뜻 깊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1954년 대구 도심의 성격을 기억하고 재현하는 중계자로 그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제고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내가 중앙통 쪽으로 빠지며 뒤돌아보니 동희누나는 사복 차림의 남학생과 나란히, 주위를 힐끔거리며 송죽극장 매표구 앞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송죽극

장에는 미국 영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¹¹⁾란 묘한 이름의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다. 입간판 그림도 서양 남녀가 껴안고 입을 막 맞추려는 장면이었다.(39)

길남이의 시선에 포착된 송죽극장과 중앙통 일대는 1954년 대구 대중문화의 메카로도 재현되고 있다. 중앙통 일대는 미국 대중영화가 상영되는 극장이 모여 있기도 하며 남녀 청년들의 연애와 비밀스런 불륜이 벌어지는 욕망의 현장으로 길남이의 시선에 포착되며 독자들에게 중계되고 있다. 한 예로 동희누나는 사복 차림의 남학생과 나란히 송죽극장 안으로 들어갔으며 안채 주인아저씨의 아들 성준은 “누님뺨은 될 법한 양장 차림의 늘씬한 중년 여인과 중앙통 거리를” 나란히 걸곤 했다. 길남이는 1954년의 대구 송죽극장과 그 일대를 오가며 어른들의 비밀스런 연애를 목격할 수 있었고 그 현장과 자신과의 괴리를 깨달을 수 있었다.

당연지사이겠으나 ‘애비 없는 장자’로서 생존의 위기를 해결할 목적으로 신문팔이를 나서게 된 길남이로서는 중앙통 일대에 전개된 1954년 대구 대중문화의 수혜를 받을 수 없었다. 애초부터 길남이는 전후 중앙통 일대의 경제와 대중문화에 투입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길남이가 중앙통 일대의 풍경에 대해 적의의 감정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길남이는 이 중앙통 일대를 오고가다가 자기를 매료시키는 어떤 계기를 만난다. 바로 문학과의 만남이다. 이 계기는 길남이가 신문팔이에서 신문배달원으로 지위가 승격되며 본격적으로 개진된다.

길남이가 신문팔이에서 신문배달원으로 취직하게 된 데에는 친구 한주도움의 컸다. “배달원은 대체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일감

11) 1937년 미국 영화. 영어 원제는 History Made At Night. 샤를르 브와이에와 진 아서가 출연한 영화.

이었고, 적은 돈이지만 학비에 충당할 만큼 월급이 나왔으므로 고학생들이 줄을 서서 대기했던 만큼 그 자리를 떠나기가 어려운 자리”였다. 한주는 이 텍스트에 등장하는 익명의 소년들과는 달리 길남이를 돕는 길남이의 유일한 친구이다. 한주 역시 길남이와 마찬가지로 1954년의 대구 구도심을 오가며 신문을 파는 거리의 소년으로서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에 찬 성장을 대변하는 전후 소년의 표상이다.

배달원으로 지위가 승격된 길남이에게 요구된 의무가 신문 구독 확장이었다. 길남이는 신문 구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소위 문학을 알게 된다. 길남이는 신문 구독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동성로의 대본집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대본집에서 길남이는 생애 최초로 『소공자』란 동화책을 만나게 된다. 길남이가 문학과 만나는 순간이다.

동성로의 늘어선 가게 중에는 동화 소설 만화 따위를 빌려주는 대본집도 신문 구독자였는데, 나는 보름쯤 뒤부터 대본집 아저씨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내가 서가에 꽂힌 마분지로 쓴 책 등의 제목을 기웃거리자 아저씨는 “너 책 좋아하는구나” 하더니 학교에도 못 다니고 신문 배달하는 나를 딱하게 보았는지 무료로 빌려가 읽어도 좋다고 말했다. 웬 횡재냐 싶어 나는 그 날로 『소공자』란 동화책을 빌려왔다. “깨끗이 보고 이틀 만에 돌려줘야 해.” 아저씨가 말했다. 낡아질세라 누른 부대중이로 표지를 싸고 붓글씨로 책 제목을 쓴 그 번역본을 나는 그날 밤으로 읽어치우고 이튿날 돌려주었다.

그 뒤부터 대본집에 있는 열 몇 권의 동화집을 읽자 소설책을 빌려 읽는 재미도 즐길 수 있었다. 어머니가 만화는 보지 못하게 했지만 소설은 별말씀이 없어 나는 탐정물을 열심히 읽었다. 김내성 방인근은 내가 처음 그분들 탐정소설을 읽고 알게 된 이름이었고 그 탐정물의 주인공인 유불란 탐정과 장비호 탐정은 그 예리한 추리력으로 사건을 명쾌하고 해결하여 지금도 내게 신화적 인물로 연상된다.(92-93)

동성로의 여러 가게 중에서 소년 길남이를 매료시킨 가게가 동화, 소설, 만화 따위를 빌려주는 대본집이었다는 것은 대단한 주목을 요한다. 그 대본집에서 길남이가 무료로 빌린 번역본 동화가 미국의 여성작가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Frances Hodgson Burnett)의 아동문학 『소공자』(Little Lord Fauntleroy)였다. 『소공자』는 미국의 서민 아들이 귀족의 나라인 영국으로 건너가 특유의 명석함으로 귀족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으니 ‘애비 없는 장자’인 길남이로서는 『소공자』의 스토리에 매료되는 게 당연하다.

길남이는 『소공자』에 이어 아마도 같은 작가의 『소공녀』를 읽었을 개연성이 크며 이어 빌린 책에서도 크게 매료되었을 것이다. 송죽극장과 중앙통 일대의 대중문화의 수혜를 받을 수 없었던 길남이는 동성로의 대본집에서 문학을 만나면서 생애 최초로 매료의 감정을 갖게 된다. 길남이가 읽은 책의 목록 중에는 김내성, 방인근의 탐정소설도 한 자리를 차지한다. 식민지 시대에는 최고의 탐정소설가로 1950년대는 최고의 대중소설가로 인기를 끈 김내성과 『조선문단』의 발행인이면서 해방 이후에는 추리소설을 발표한 방인근의 작품들을 길남이가 알게 된 것이다. 길남이는 이들 소설에서 『소공자』에서 볼 수 없었던 삶의 불가해한 측면들을 어렵풋하게나마 이해한 듯하고 그 불가해한 측면을 명석하게 풀어나가는 탐정들에 환호한 것으로 보인다.¹²⁾ 대본집에서 문학을 만나게 된 이후 길남이는 책 읽는 소년으로 변모한다.¹³⁾

12) 방인근의 탐정소설 『복수』는 1951년 12월 20일 대구에서 출판되었다. 1954년 대구 시내의 대본집에서 방인근의 작품은 충분히 볼 수 있는 책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박용찬의 논문을 참고, 박용찬, 『1950년대 대구의 문학공간 형성과 출판매체』, 『국어교육연구』 제51집, 2012.

13) “신문배달이 없는 날이었으므로 오후 들어 내가 가게 앞에 나왔을 때 따뜻한 별을 찍며 대본집에서 빌려온 김내성의 『괴기(怪奇)의 서첩(書帖)』이란 탐정소설을 읽고 있자니,

그런데 책 읽는 소년 길남이의 내적 성숙은 단지 문학과와의 만남을 통해 서만 촉진되는 것은 아니다. 안채의 크리스마스 파티를 넘어 나간 채 지켜 보던 아들이 못 미더운 어머니가 길남이를 혼내다가 재봉틀 바늘에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일어난다. 그러자 길남이는 가출하여 자신의 친구인 한주를 찾는다. 한주가 길남이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하자 길남이는 “너한테 인제사 하는 말이지만 난 사실 우리 어무이가 낳은 자식이 아니거덩. 아버지가 어데서 나를 낳아 집으로 델꼬 왔어. 그래서 난 낳은 어무이가 누군지 얼굴도” 모른다고 자신의 가출을 합리화한다.

‘나는 사생아’라는 길남이의 진술은 사실 거짓이지만 이 거짓은 책읽는 소년 길남이가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는 문학적 수사로 해석될 수 있다. 『소공자』에 매료된 길남이는 자신을 사생아로 설정하고 있고 이 설정에는 자신의 처지가 언젠가는 역전될 수 있다는 기대가 은근히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학적 수사는 당면한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자기체별적 악몽으로 괴로워하는 길남이를 구원해주지 못한다. 가출 소년 길남이가 잠을 잘 곳이라곤 역전 외에는 없었다. ‘나는 사생아’라는 그의 문학적 수사는 엄혹한 현실을 감당하기에는 그 내적 근거가 너무도 약했다. 그렇지만 이 가출 사건도 나름 길남이의 내적 성숙을 견인하는 의미가 있다. 길남이의 가출은 오래 지속되는 사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모친과 결별해 자기 세계 구축의 가능성을 최초로 모색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길남이의 내적 성숙과 전혀 무관하다도 말하기는 어렵다.¹⁴⁾

주인이주머니가 열 살 남짓한 단발머리 계집아이를 뒤에 거느리고 돌아왔다.”(187)

14) 여기서 말하는 내적 성숙은 특히 문학과와의 만남을 통한 정신적 매료의 체험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자의식의 형성이다. 아비 없는 장자라는 길남이의 현실적 삶의 조건은 소공자와 같은 문학을 만나며 위로되거나 나는 사생아라는 식의 자의식으로 비화한다. 이와 같이 필자는 문학과와의 만남을 통해 진행된 길남이의 정서적 감응과 자의식의 형성 등이 길남이를 정신적 성숙을 견인하는 증거로 독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적

이처럼 1954년 대구에서 길남이는 ‘애비 없는 집안의 장자’ 역할만 한 게 아니다. 길남이는 1954년 대구 도심의 경제와 대중문화의 현상 등을 중계하는 서술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길남이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내적 성숙을 견인하는 문학을 만나는 독자로 탄생하고 급기야는 모친과의 분리와 그에 따른 고통을 감당하는 사생아를 연기하기도 한다. 필자는 이런 점에서 1954년 대구 도심을 오고가며 신문을 배달한 길남이의 신문팔이 동선을 길남이와 문학과 만난 성숙의 길이자 또래 전후 소년들의 가장 역할이 대행되는 성장의 길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필자는 바로 이와 같은 길남이의 신문팔이 동선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독서대중들이 『마당깊은 집』을 한 어린 영혼의 내적 성숙과 전후 소년들의 성장의 경로를 그린 텍스트로 이해하고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다. 요컨대 필자는 오늘날의 독서대중들이 『마당깊은 집』을 집터와 관련 건축물 등 하드웨어적 측면의 문화콘텐츠로 이해,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그 콘텐츠의 내부를 구성할 감동의 스토리로서 전후 소년의 성숙과 성장을 주목해야 하며, 이 지점에서 이 텍스트는 인문적 텍스트로 독해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필자는 본고에서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을 대상으로 이 텍스트가 1954년의 대구를 어떻게 기억하며, 2014년 오늘날의 독서대중들이 『마당깊은 집』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마당깊은 집』은 1988년 출간 이래 독서대중들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문화방

송 드라마로 제작되거나 문화콘텐츠로 각광받는 등 허구의 경계를 넘으면 서까지 지속적인 독해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필자는 그간 『마당깊은 집』이 전후 대구의 결여와 길남 가족의 간난신고를 이야기하는 소설로 독해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해 본고에서 기존의 독해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독해를 시도하게 되었다. 그 새로운 독해는 두 가지 차원에서 시도되었다. 하나는 『마당깊은 집』을 전후 대구의 결여와 길남 가족의 간난신고만이 아니라 대구의 경제적 열기, 로컬로서의 대구를 재구성하는 관련 인물들의 역학 구도, 당시 대구 고유의 일상과 사건 등을 총괄적으로 재현하는 로컬 텍스트로 독해하자는 것이었다.

다른 또 하나의 독해는 오늘날의 독서대중들이 『마당깊은 집』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독해는 최근 『마당깊은 집』이 하드웨어적 차원의 문화콘텐츠로 소개되거나 탐방되는 사례가 많아지는 상황을 감안해 이와 같은 기억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목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필자가 여기서 주목한 것은 길남의 내적 성숙과 전후 소년들의 성장을 이끈 신문팔이 동선이다. 이 신문팔이 동선을 필자는 근본적으로 길남이로 대변되는 전후 소년들의 내적 성숙과 성장을 이끈 길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자는 길남이가 동성로에 소재한 대본집에서 최초로 문학과 만나는 사건을 뜻 깊게 해석했다. 전후와 결여와 열기가 공존하는 1954년 대구에서 길남이는 자기를 구원하는 방식으로 이 대본집의 책들에 매료된다. 이런 점에서 『마당깊은 집』은 김원일의 문학의 기원을 밝히는 텍스트로 독해될 수 있다고도 본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건은 책 읽는 소년 길남의 가출 사건이다. 이 가출 과정에서 길남은 자기를 사생아로 설정하는 등 문학적 수사를 동원해 자기의 가출을 합리화하지만 그 수사는 당면한 굶주림과 추위로부터 자기를 구제해 줄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신문팔이 소년에서 책 읽는 소년으로, 책 읽는 소년에서 가출하는 소년으로 변모하는 길남은 서서히 어머니와 세계와 분리되어 본격적으로 자기를 고민하고 자기를 생각하는 자기 성숙의 길을 걷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필자는 오늘날의 독서대중들이 길남이의 내적 성숙과 전후 소년들의 성장을 이끈 신문팔이의 동선에 내재된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보편적인 인문적 가치로 상상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즉 『마당깊은 집』의 집터와 현장과 같은 하드웨어적 측면을 탐문하며 이 텍스트의 현재적 의미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하드웨어를 메꿀 감동의 스토리로서 아비 없는 장자인 길남이의 내적 성숙과 성장을 주시하자는 것이다. 이럴 때 『마당깊은 집』을 놓고 행해지는 하드웨어적 측면의 탐방도 호기심의 차원이 아닌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김원일, 『마당깊은 집』, 문학과 지성사, 2012년 15쇄.

2. 논문 및 단행본

김한식, 「소년들의 도시, 전쟁과 빈곤의 정치학」, 『비평문학』37집, 2010, p.155.

박용찬, 「1950년대 대구의 문학 공간 형성과 출판매체」, 『국어교육연구』제51집, 2012, p.344.

박진숙 외, 『마당밭』, 청동거울, 2002, pp.194-195.

윤정현, 「가족소설의 관점에서 본 소년서사의 두 유형」, 『동북아문화연구』제36집, 2013, p.144.

이상우·전선영, 「성장소설 연구: 김원일 소설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제19권 1호, 2011, p.90.

박승희, 「로컬리티와 1954년 대구」, 『인문연구』64호, 2012, pp.49-50.

Abstract

Ways of Recollection

- Focus on the representation of Daegu in the novel
'A House with a Deep Garden' -

Yang, Jin-O

This article examines how Kim Won Il's novel 'A House with a Deep Garden' recollects and represents Daegu in 1954, and how its text should be remembered in relation to the contemporary Daegu society. The article suggests new possibility of interpretation different from the prevalent reading of other researchers and readers that see this text as a story of the state of absence in war-torn Dague, and of the hardships of Gilnam's family. Such alternative reading can be possible when considering this novel as Daegu's local text that does not only represent the state of absence but other aspects including the economic fervor. Thus, it is necessary to examine Daegu society in 1954 in this text in detail including the cognitive gap between the mainstream locals and refugees as well as the local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 In addition, the article raises the question about how to remember this novel in the situation where the story is now popularly considered to be a representative cultural contents of Daegu's past. One of the hints lies in the scene where Gilnam encounters literary books at a store at Dong-seoungrho while he was selling newspapers. That is, what we should really pay attention to in 'A House with a Deep Garden' is the cause and meaning of Gilnam's internal growth.

Key Word : meory, local text, human text, daegu, internal growth, literature,
book

양진오

소속 : 대구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 대구시 수성구 만촌3동 864-7

전화번호 : 010-2031-7592

전자우편 : tell65@hanmail.net

이 논문은 2014년 2월 28일 투고되어
2014년 3월 2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4월 8일 게재 확정됨.